

신약개론 2강_마태복음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시간이 진짜 손살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 후 긴장이 풀려서 다음 날 오전까지 몸이 아프더라구요. 하지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많이 있었구나. 제가 하는 조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느꼈습니다.

지난 주 신구약 중간사에서 기억해 볼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편지를 읽을 때 수신자의 상황, 발신자와 수신자가 처한 정황 등을 알고 있어야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 목적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도 되도록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고 또 저자의 신학적 목적도 생각하며 읽어야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 할 때 약간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경건의 시간 본문에 지난 주에 잠깐 언급한 부분이 나왔었죠. 당시 로마 시대는 전통적 신화가 시골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온 루스드라 지역은 갈라디아 행정구역 안에 있는 시골이었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숭배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배경 지식이 조금 있으면 성경을 관찰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합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A.D. 90년 경 쓴 복음서로 그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들로 인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의 광인을 마태복음 8: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 두 명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으로 묘사됩니다. 누가복음도 한 명으로 얘기합니다.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복음서는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농 사거리 각자 다른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대형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합시다.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같은 사건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보는 위치에 따라 독특한 관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깁니다. 100% 맞는 예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참고할 만합니다. 저희가 자주 언급하는 포렌식 기법 있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은 트리뷴 지 신문기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성경을 추적해 나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포렌식 기법이 뭐죠? 포렌식 기법 중 하나가 증언자의 증언을 면담하는 것인데요. 그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이 증언자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고 즉시 거짓말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과 정황의 요소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조작과 수정이 더욱 의심되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기록한 것을 생각할 때 사건 중 일부 다른 내용들은 목격자들이 정말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대로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초대 교회 시절부터 교회가 가장 애용하던 복음서였습니다. 초대 교부들 설교집, 변증서들을 보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을 더 많이 인용했어요. 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연결성이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

물론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저자로 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 (tax collector)였죠(마 9:9~10, 10:3).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 뜻은 '연합함'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굳이 이름의 의미를 풀어 보았습니다. 어느 주석집에도 나와있지 않은 순수 조상경 강도사의 로열티가 담긴 해석입니다.

세리 마태가 저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외적 증거로는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파피아스의 증언입니다(교회사 3.39.16).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격언)를 히브리어(아람어)로 저작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번역(해석)하였다."

저자의 잦은 구약 인용.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 방식. 율법과 대조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우월하다.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굳이 율법과 대조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저자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다 자세히 기록한 점을 언급하면서 저자가 세리 마태일 것이다 얘기합니다(마 17:24-27에 기록된 성전세 이야기, 18:23-25에 나타난 무자비한 종의 비유 등등).

이런 것들을 볼 때 마태가 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마 10:3). 저는 세리 마태가 저자라고 믿어요. 앞의 말은 학자들의 표현법이에요. 정확하게 뭐다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기록됐을까?**

예상되는 장소로는 시리아의 안디옥 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가 된 교회이죠.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 그 유명한 1,2,3차 전도여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안디옥 인구의 1/7이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기록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용이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학자들은 마태가 유대교적인 강조를 많이 한 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적인 전승과 구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거에 한 표. 또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당시 교회가 지켜야 할 규범들 또한 담겨 있는 곳으로 보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의 역할도 했다고 봅니다. 마 18:15-35 참조,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처음엔 혼자, 그 다음엔 한두 사람, 그 다음엔 교회,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 안의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만 달란트 빚진 자,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기록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기록시기에 대한 분수령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된 주후 70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 부정적으로 봅니다(예. 다니엘서의 성전회복 예언, 안티오쿠스 4세(주전 175-164년)에 의해 핍박받을 것에 대한 예언 등을 믿지 않는 학자들).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히려 성전 멸망 후에 이 사건을 마치 예언처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그 성취를 믿는 우리는 마태가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 예수님이 이 예언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면 그 큰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 없다 보는 거죠. 또한 만약 70년 이후에 기록했다면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서 별 의미도 없는 성전세(17:24-27), 성전에 드리는 예물(5:23-24), 예식(23:16-22), 또는 유대인의 안식일 준수(24:20)가 왜 자세히 기록되었는가 하는 의문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루살렘 멸망 후 사두개인은 아예 존재감이 사라지는데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적대심을 왜 굳이 강조해서 기록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60년대 어느 시기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주제**

(1) 다윗의 후손, 왕, 왕 같은 메시아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칭호 중 하나가 '다윗의 후손'입니다. 모두 아홉 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 여덟번은 다른 복음서와 병행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누가복음에 네 번, 마가복음에 세 번 등장하는데, 신약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16 (NKRV)

¹⁶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또 빌라도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아줍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마땅히 알아보아야 했을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치유를 받아야 했던 병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9:27; 15:22; 20:30).

마태복음 9:27 (NKRV)

²⁷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15:22 (NKRV)

²²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 20:30 (NKRV)

³⁰맹인 두 사람이 길 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생각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왕중의 왕이심을 알아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제목도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해 준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2) 하나님의 아들

막 1:1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호칭임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 (NKRIV)

¹**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 호칭의 마태의 사용이야말로 후대의 신조와 고백으로 더욱 분명해진 예수님의 신성을 보다 뚜렷히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14:33).

마태복음 14:33 (NKRIV)

³³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42-55, 요한복음 6:16-21을 보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음)

또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16:16).

마태복음 16:16 (NKRIV)

¹⁶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만한 용어는 임마누엘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분을 임마누엘로 소개하는데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 성육신하신 지혜?

12:42과 13:52을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강조되는데요.

마태복음 12:42 (NKRIV)

⁴²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3:54 (NKRIV)

⁵⁴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 11:19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행한 일을 관주로 보면 어떤 사본에, "자녀들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행하신 일로도 증거가 되고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1:28-30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그 분께로 부르시며 그들에게 쉼을 약속하시는데요. 시락(Sirach)의 아들 예수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약

중간기의 “지혜 문학” 문헌 속에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이야말로 잠언 8-9장에 등장한 “지혜”가 예수님을 성육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묘사하려는 마태의 관심사라고 얘기합니다.

(4) 선생

마가복음과 비교할 때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 묘사하는 점입니다. 베이커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다섯 개의 강화 설교를 모세 오경을 대체한 가르침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새로운 율법의 수여자, 새로운 모세로 여기는 주제를 여러 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모세와 예수님은 비슷한 부분이 여럿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죽이게 했죠.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역의 두 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헤롯 왕이 다 죽이게 했습니다. 모세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예수님도 죽음을 벗어나 살아 나십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출애굽 하죠. 예수님도 이집트에 계셨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40일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연단 받으십니다. 모세의 40일 금식기도와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도 같은 부분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 백성들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제자와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변모된 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서 변화하시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실 때 산에서 주셨다고 합니다. 28:16 볼까요?

마태복음 28:16 (NKRV)

¹⁶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교사로 마태를 통해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율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율법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졌어요. 지키기 너무 어려운 의무로 여겨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높은 차원의 “의”인데

마태복음 5:20 (NKRV)

²⁰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부담을 주기 보다 오히려 쉼을 줍니다(11:28-30).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쉼을 줍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함께 부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독특한 주제들

(1)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배타주의와 보편주의

마태복음은 정말 특이하게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듯한 장면들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구조인데요. 먼저 논란이 되는 유명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10:5-6 (NKRV)

⁵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⁶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23 (NKRV)

²³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또 마치 이스라엘 지역의 복음 사역이 마쳐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24 (NKRV)

²⁴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또 예수님은 자기 딸의 귀신들린 것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매몰차게 쳐 내시죠.

이런 걸 보면 모두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도 마태복음의 유대성을 더욱 강조해 주는데요. 왜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한 것을 마태는 “천국”, kingdom of heaven으로 기록했을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반영합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 39번 반복되는데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아기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2:1-12), 세 개의 연속적인 비유들은 당대 유대 지도자들의 몰락을 예언합니다(21:18-22:14). 또한 마태복음에만 열 두 사도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복(blessing)이 세계 열방에 퍼

지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마 1:1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 (NKRIV)

¹**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창 12:3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영생의 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부여받은 복, 임마누엘의 복 등).

창세기 12:3 (NKRIV)

³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앞 부분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새로 형성된 교회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마 28:19-20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19-20 (NKRIV)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다(make disciples)죠. 그리고 수식하는 분사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입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십니다. 선교학적 용어로 Missional Church라고 합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선교가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의 뿌리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Missional God 즉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재정후원이 될 수도 있구요. 정기적으로 그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교회가 선교에도 더욱 활발한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례를 주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그냥 줍니까?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말씀 듣고 난 후 "세례 받을 사람 나오십시오."하면 수 백 수 천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왜요? 군대에서는 먹을 수 없는 햄버거와 콜라를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군대 문화가 바뀌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군대에 갔던 99년도에는 절박했습니다. 그 햄버거와 콜라는 오성급 호텔 뷔페권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감동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갑니다. 초코파이도 먹어야 되고 다른 선물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원래 세례는 정말 신앙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세례자 교육을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난 후 진실되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게 세례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전도와 초기양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브릿지로 복음을 전해서 EBS 그리고 나인블레싱까지. 우리는 교회로써 세례를 주는 일. 즉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기양육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운 것들을 지키면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천에 대한 의지로 인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급양육과정. 즉 제자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로써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배타주의와 보편주의를 이해하려는 좋은 시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두 단계로 전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방인들 즉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접촉하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극혐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배타주의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방 선교의 길을 미리 열어놓으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전도를 다니면서 항상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 이후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롬 1:16을 보면 바울이 이런 사역 원리를 따라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6 (NKRIV)

¹⁶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2) 유대 당국과의 갈등

마태복음에서 유대적 색채가 짙은 보편주의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거침없는 언행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만나는 장면을 대개 적대적인 분위기로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7:25를 신약성경에서 가장 반유대적인 구절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쳤다). 마태와 예수님은 마치 자신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를 “그들의” 회당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4:23; 9:35; 10:17; 12:9; 13:54). 특히 마태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일곱 번 언급했는데 모두 부정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먼저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조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5개의 긴 강화(discourse)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강연은 세 장에 걸쳐 기록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연은 한 장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강연을 마치실 때마다 마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7:28; 11:1; 13:53; 19:1; 그리고 26:1에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덧붙이고 있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첫 번째 강연(설교) 5-7장

마태복음 7:28 (NKRIV)

²⁸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마태복음 7:28 (ESV)

²⁸And when Jesus finished these sayings, the crowds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두 번째 강연(설교) 10장

마태복음 11:1 (NKRIV)

¹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마태복음 11:1 (ESV)

¹When Jesus had finished instructing his twelve disciples, he went on from there to teach and preach in their cities.

세 번째 강연(설교) 13장

마태복음 13:53 (NKRIV)

⁵³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마태복음 13:53 (ESV)

⁵³And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parables, he went away from there,
네 번째 강연(설교) 18장

마태복음 19:1 (NKRV)

¹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마태복음 19:1 (ESV)

¹Now when Jesus had finished these sayings, he went away from Galilee and entered the region of Judea beyond the Jordan.

다섯 번째 강연(설교) 23-25장

마태복음 26:1 (NKRV)

¹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6:1 (ESV)

¹When Jesus had finished all these sayings, he said to his disciples,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를 모세오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이라는 견해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자들의 시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신신대원 신약학 박형대 교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의 이 다섯 강화는 시편 1~5권에 주제와 더 맞다 얘기하셨어요. 그와 관련된 논문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봐야겠네요.

마태복음은 서사 또는 이야기(narrative)와 가르침(강화)이 교차되어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를 노련한 문학적 장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즉 5개의 서사와 강화가 번갈아 가며 기술됩니다.

1. 서언(1:1-2:23)

여섯 부분으로 나뉘며, 족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성취 공식의 형태로 구약이 인용됩니다.

- 1) 예수님의 족보(1:1-17).
- 2) 예수님의 탄생(1:18-25).
- 3) 동방박사들의 방문(2:1-12).
- 4) 이집트로의 도피(2:13-15).
- 5) 베들레헴에서의 대학살(2:16-18).
- 6) 나사렛으로의 귀환(2:19-23).

2. 하나님 나라의 복음(3:1-7:29)

- 1) **서사(3:1-4:25)**. 세례 요한의 사역(3:1-12)과 예수님의 세례받으심(3:13-17)과 시험받으심(4:1-11)과 초기 갈릴리 사역(4:12-25)이 묘사 되어 있다.
- 2) **산상 강화(5:1-7:29)**. 예수님은 구약과 관련지어(5:17-48) 천국의 규범과(5:3-12)과 증인(5:13-16)을 소개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된(6:19-34) 위선에 대해 경고하신다(6:1-18). 균형과 온전함은 구약이 바라는 바를 완성한다(7:1-12). 사람은 두 길과 두 나무와 두 주장과 두 건축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7:13-27). 끝맺는 구절은 예수님의 권위를 재확인한다(7:28-29).

3. 예수님의 권위 아래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8:1-11:1)

- 1) **서사(8:1-10:4)**. 하나님 나라와 왕의 면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적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9:9)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9:1-13)도 묘사 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현존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기쁨의 때가 임이 선포된다(9:14-17). 더 많은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9:35-38)과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난다.
- 2) **선교와 순교 강화(10:5-11:1)**. 열두 제자와 선교에 관해 말씀하신 후(10:5-16),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 경고하시고(10:17-25),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안에서 두려움을 금하시며(10:26-31),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 기술하신다(10:32-39). 이런 제자를 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다(10:40-42).

4.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심: 반대가 일어나다(11:2-13:53)

- 1) **서사(11:2-12:50)**. 구속사의 흐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할 관련성을 설정한다(11:2-19). 또한 갈릴리에 있는 '선하고' 종교적인 유대 마을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정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선포된 평안과 쉼(아들의 '멍에'라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을 언급함으로써 대중의 기대를 뒤집는다(11:28-30). 안식일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긴장은 고조되며(12:1-14), 예수님은 자신을 노골적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닌 겸손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천명하신다(12:15-21).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이에서뿐 아니라(12:22-45) 예수님과 가족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일어난다(12:46-50).
- 2) **강화(13:1-53)**. 기대의 반전이 하나님 나라 비유들의 주요 주제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5. 영광과 그림자: 점증하는 대립(13:54-19:2)

- 1) **서사(13:54-17:27)**. 일련의 짙막한 서사는 점증하는 극단적 갈등(예. 나사렛에서의 배척,

13:54-58; 헤롯과 예수님, 14:1-12; 표적을 구함, 16:1-4)과 예수님의 능력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로 점철되어 있다[예. 5천 명을 먹이심, 14:13-21; 14:22-15:20과 17:1-20(21)도 보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서(16:13-20)에서 절정을 이루지만, 바로 다음 첫 번째 수난 예고 이후에 벌어진 일(16:21-23; 참고. 17:22-23의 두 번째 예고)은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2) **하나님 나라 권위 아래서의 삶 강화(18:1-19:2).** 위대함은 겸손과 결부되어 있으며(18:3-4), 신자들을 범죄케 하는 것보다 심각한 죄는 없고(18:5-9),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한 양을 먹이는 것보다 중요하며(18:10-14), 메시아 공동체 내에서 신자들은 용서와 권징을 함께 시행해야 함(18:15-35)을 말씀하신다.

6. 반대와 종말론: 은혜의 승리(19:3-26:5)

- 1) **서사(19:3-23:39).** 논쟁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뜻밖의 행동을 강조한다(19:3-20:34).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21:1-11), 성전을 정화하시고(21:12-17),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21:18-22), 자신이 메시아라는 주장으로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신다(21:23-22:46). 분노한 예수님은 율법학자(서기관)와 바리새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시고(23:1-36), 예루살렘에 대해 애통해하신다(23:37-39).
- 2) **감람산 강화(24:1-25:46).** 난해하기로 유명한 이 강화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24:1-3). 먼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해산의 고통(24:4-28)과 인자의 오심을 설명하고(24:29-31), 산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24:32-35), 인자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함을 촉구한다(24:36-41). 이어지는 일련의 비유는 깨어 있으라는 주제를 다양하게 묘사한다(24:42-25:46). 전환적인 결론부에는 마태복음의 네 번째 주요 수난 예고와 예수님을 해하려는 계획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온다(26:1-5).

7.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26:6-28:20)

- 1) 수난.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음(26:6-13)과 유다의 배반(26:14-16) 직후에 최후의 만찬(26:17-30)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26:31-35), 겐세마네(26:36-46), 예수님의 체포(26:47-56), 산헤드린 심문(26:57-68),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26:69-75), 산헤드린의 공식 결정(27:1-2), 가롯 유다의 죽음(27:3-10), 빌라도의 심문(27:11-26), 군병들의 희롱(27:27-31), 십자가에 달리심과 조롱(27:32-44), 예수님의 죽으심과 즉각적인 효과(27:45-56), 예수님의 장례(27:57-61), 무덤을 지킨 경비병(27:62-66)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된다.
- 2) 부활. 28:1-17의 이야기는 지상명령(2:18-20)에서 절정에 이른다.

➔ 5개의 서사와 5개의 강화가 교차되어 나옴.

앞 부분에서 마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을 나열했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2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웃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
3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아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맛단	야곱	요셉	예수

14대씩 3시기로 구분하여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시기마다 여러 세대들이 생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시기인 다윗 왕가의 시대에 요람과 웃시아 사이에 있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윗이 히브리어로 다비드. דָּוִד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하는데요. 첫 자음인 달렛이 숫자 ‘4’입니다.

둘 째 자음인 바브(vav)는 ‘6’입니다.

마지막 자음인 달렛은 ‘4’

4+6+4=14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中间的의 여러 사람들을 생략해서라도 열 네대로 맞춘 것이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3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 확실한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또한 증명하려 합니다. 마태는 약 20개의 구절이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성취한 것으로 인용하는데요. 그 중 절반정도는 오직 마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구절이 없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의 약속들은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보다 히브리 원문을 더 충실히 따릅니다(로버트 건드리의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St. Matthew’s Gospel*”). 이런 걸 볼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다”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구약 예언과 신약 성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소 지도자, 힘			álef	’	’	uh*oh
2		장막, 집 가족			bet	b	b	bat
					vet	b	r	cave
3		발, 낙타 전다, 모으다			gímel	g	g	good
4		문, 속, 통과			dálet	d	d	dog
5		손, 왼손, 자계시, 표를			heh	h	h	horse
6		갈고리, 연결, 보안			vav	w	r	vine
7		곡괭이, 무기, 기병, 자르다			záyin	z	z	zebra
8		올다리, 물리, 상영			het	h	h	Bach
9		바구니, 밭, 만나다, 배			tet	t	t	tea
10		팔, 일하다, 만지다			yod	y	y	you
20		손, 팔, 손, 이다			kaf	k	k	keep
					khaf	k	kh	Bach
30		막대기, 가르치다, 영매			lámed	l	l	light
40		전리, 피, 물, 돈			mem	m	m	map
50		물고기, 씨, 후사, 계속하다			nun	n	n	new
60		가시, 지주, 지지, 측정			sámekh	s	s	say
70		눈, 보다, 알다			áyin	‘	’	uh*oh
80		입, 말하다, 풀다			peh	p	p	pen
					feh	p	f	if
90		눈시, 바늘, 목구, 착임			tsádeh	š	ts	cats
100		지는데, 바늘귀, 시간, 소망			qof	q	k	keep
200		머리, 시작, 양태			resh	r	r	air
300		이빨, 누르다, 부수다			sin	ś	s	say
					shin	š	sh	ship
400		십자가, 표시, 연막, 목표			tav	t	t	tea
						t	t	

pataḥ		a
qamats		ā
qamats malé		āh
segol		e
tsére		ē
segol malé		eh
		ê
ḥíriq		i
ḥíriq malé		î
ḥólem		ō
ḥólem malé		ōh
		ô
qibbut		u
shúreq		û

그래서 마태는 “이는...말씀을...이루려 하심이라”는 공식 어구로 소개되는 10개의 구약 성취 인용문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이 제시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구약 예언	신약 성취
1.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 7:14	1:22~23
2.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호 11:1	2:14~15
3. 헤롯의 유아 학살	렘 31:15	2:17~18
4. 나사렛에서 탄생과 성장	사 11:1	2:23
5.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	사 9:1~2	4:12~16
6. 예수님의 치유 사역	사 53:4	8:16~17
7. 메시아의 인물적 특징	사 42:1~4	12:15~21
8. 예수님의 비유 사용	시 78:2	13:34~35
9.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슥 9:9	21:1~5
10. 가롯 유다의 배반과 자살	슥 11:12~13 렘 18:2~4, 32:6~15	27:9~10